

‘5·18 왜곡’ 기승 부리는데... 대응 인력·예산 태부족

게임 플랫폼 등 갈수록 첨단화
담당인력 3명에 4650만원 배정
건축재정 기초 탓 예산 대폭 삭감
市 “하반기 추경 관련예산 확대”

‘4650만원, 총 3명의 인력.’

광주시가 5·18 왜곡을 잡아내기 위해 투입하는 1년 예산과 인원이다. 이 중 2명은 광주시청이 아닌 5·18기념재단 소속이다. 이들 3명은 5·18 왜곡에 대한 모니터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도 담당한다. 예산 역시 마찬가지다. 시비인 4650만원 중 2650만원은 오월길 안내인들의 인건비다. 나머지 2000만원이 인터넷 상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오는 5·18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제보가 접수된 유명 게임 플랫폼과 관련 “가상현실 플랫폼 내 게시된 ‘그날의 광주’ 제보와 삭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보여준 사례”라며 “정당”의 이름으로, 때로는 ‘종교’의 이름으로 평범한 외양으로 다가와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희망은 게임의 내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거부와 반대의 뜻을 밝힌 평범하고 건강한 초등학교 시민이 있다는 사실”이라고 짚었다.

해당 사건은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인 ‘로블록스’ 내에 게시된 ‘그날의 광주’라는 게임에서 발생했다. 이 게임에서는 1980년 5·18 최후 항쟁지 광주 금남로를 배경으로 시민군과 계엄군이 총격전을 벌인다. 그런데 5·18의 가장 대표적 왜곡사례인 ‘북한군’을 게임머니로 구입하는 것도 모자라 북한군이 판 땅굴을 따라가면 인공기와 북한 노래까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온다. 해당 게임은 초등학교까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누적 이용자는 1만5000명이 넘었다. 다행히 이를 본 부산의 초등학교생이 지난달 말 방송사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으며 5·18기념재단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즉각 삭제를 요구했다. 로블록스는 ‘그날의 광주’를 삭제했으며 입장문을 통해 “해당 콘텐츠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 사건은 제보로 발견됐지만 인터넷상에서 이와 유사한 왜곡은 하루에도 수백 건씩 쏟아지고 있다. 그 수법 또한 갈수록 첨단화하고 치밀해지며 교묘해지는 중이다. 문제는 이에 대응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제보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시 내부에서 5·18민주화운동 왜곡·편향·허위사실 대응 관련 인력은 단 1명이다. 5·18 기념재단까지 합치면 총 3명으로, 왜곡 뿐만 아니라 진상규명까지 담당하고 있다.

인력 부족은 적은 예산이 원인이 됐다. 지난해 말 광주시는 5·18 왜곡 대응을 위해 2억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도 왜곡이 확산되는 속도를 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지만, 광주시의회는 여기서 1억 5350만원을 삭감했다.

이에 광주시는 4650만원만으로는 5·18 왜곡·편향 대응을 하고 있다. 이것만은 부족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는 재단 운영 전용 예산 일부를 쪼개 관련 사업에 투입 중이다.

여기에 지난달 18일 편성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727억원에도 관련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5·18 재단이 5·18 왜곡 대응 사업에 6000만원, 오월길 관광 안내 사업 7000만원을 기안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정책 기조와 중복 사업 편성 우려로 시 차원에서 반려됐다.

결국 현재 인터넷상 5·18 왜곡과 관련한 광주의 대응은 인공지능 전문업체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에 포털 등 특정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삭제토록 하는 관련 외주유역을 맡긴 것이 전부다.

▶ 2면에 계속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모두의 오월, 민주를 그리다’

목포 오월길 걷기에 참가한 목포여자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7일 5·18민주화운동 사적지인 목포 중앙교회 옛 터 일대를 둘러보며 5·18의 의의와 가치를 되새기고 있다. 학생들은 목포근대역사관, 동아약국과 안철 선생 가옥 옛 터, 목포역, 중앙공설시장 옛 터 등을 탐방했다. 이번 행사는 전남서부보훈지청 주최·주관으로 열렸다. ▶ 관련기사 4면

나건호 기자

김영록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의무 강화”

‘국립의대 설립·국고 확보 등 총력’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7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각 실국에서 소관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열어 “최근 도내에서도 중대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안전·보건 의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교육도 중요하지만 공사 전 사전

안전 점검과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며 “시군과 협조를 통해 철저한 교육과 안전 점검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정부가 의대 증원 발표 관련 수요 조사를 반영해 이달 말까지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지난 1일 정부에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정원을 대입 전형 시행 계획 과정에서 200명 배정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전남도, 목포대와 순천대, 순천시와 목포시, 국회의원, 국회의원 당선자, 도의회 및 시군의회, 도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12일 국립

의대 설립을 위한 협력을 위해 공동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국고 확보 총력도 당부했다. “5월 부처에서 예산안이 확정돼 기획재정부로 요청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현안이 있지만 분야별로 예산을 잘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중요한 사업 뿐 아니라 타당성 조사 과정에 있는 사업들도 예산 확보까지 이어지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무안국제공항활성화에 대해선 “무안공항은 전남도 전체의 국제공항이며 광주의 관문이자 더 넓게는 충청권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서남권 거점 공항이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

모두의 오월, 민주를 그리다!

민주역사 골든벨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지역의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모두의 오월, 민주를 그리다!’를 주제로 한 민주문화제의 일환으로 민주역사 골든벨을 개최합니다. 5·18민주화운동의 의의와 가치를 미래세대와 함께 공유하고 도새기기 위한 민주역사 골든벨 행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4년 5월 8일(수) 10:50-12:30
장소 목포정명여자중학교 정명관
참여학생 목포정명여자중학교 3학년 전체
진행방법 개인별 서바이벌 퀴즈 골든벨 대회
시상내역 골든벨 수상자 시상품 제공 (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주최/주관 전남서부보훈지청